

자영업자 혹독한 시련...“더는 못 버텨” 휴·폐업 속출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어”
광주 음식점 120곳 폐업 신고
영업시간 단축·주말만 영업
대리기사 소득 반토막나고
학습지 교사들은 수입 끊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감염 우려로 외출을 기피하면서 손님들 발길이 끊기며 매출이 급감하자 “인건비나 야기자”며 일시적으로 휴업하는가 하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강사 등도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9일 찾아가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삼겹살

전문점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잠정 휴업한다”는 공지가 내걸렸다. 음식점 주인은 “손님도 없고 문을 열어야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다”며 “임대료가 나가더라도 잠시 문을 닫는 게 덜 손해라 지난 달부터 휴업중”이라고 했다.

인근 다른 음식점도 ‘10일간 휴무를 결정했다’는 안내문을 붙였고, “당분간 예약 손님에 한해 문을 연다”고 써 붙인 식당도 눈에 띄었다.

차마 휴업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도 마감시간을 앞당기거나 주말·평일 영업만 택하는 등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산동 벌인 인근 마카롱 전문점은 “3월 한달간 금·토·일요일만 문을 연다”고 공지했다. 일대의 다른 음식점들은 마지막 주문 시간을 밤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인근 카페들도 코로나19를 내세워 마감시간을 1~2시간 앞당긴다는 공지를 붙여놓았다.

광주 동구에서 3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60대 사장은 “명절을 빼고 선 적이 없는데 워낙 손님이 없어 휴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매출 자체가 없는 우리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폐업 신고한 광주지역 일반음식점은 1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곳)보다 36.4%(32곳) 늘었다. 휴게음식점 역시 올해 30곳이 폐업, 작년 같은 기간(23곳)보다 30.4%(7곳)가 늘었다.

특수 고용노동자들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1500명 가량의 대리운전기사 수입은 평소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한달 25일 중 야간에만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평균 150만~200만원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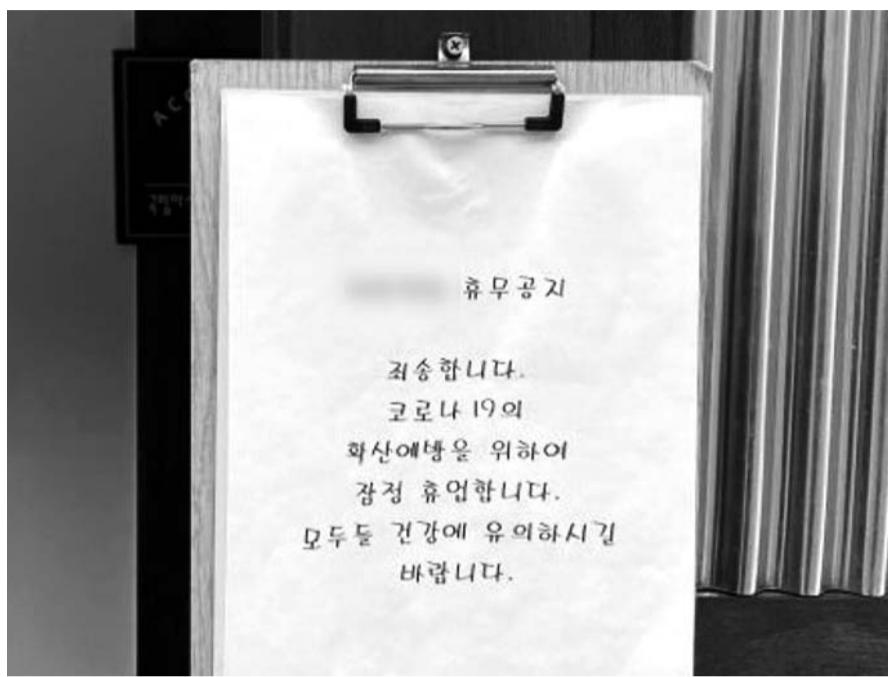
을 올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회사 자리 자체가 줄면서 한달 평균 70만~1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학습지 교사들도 가정을 방문하는 특수성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

예전 하루 평균 13곳을 들렀던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학부모들의 방문 연기 요청이 쇄도하면서 하루에 3곳만 들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평균 수입도 예전에 비해 40~70만원 가량 감소했다.

광주에서 20년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를 해온 김모(52)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 감소로 그만두려는 선생님들이 많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가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휴업한다는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스크 5부제 첫날 신원 확인하는 약국 (왼쪽)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9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학 연기로 수입 손실” 학교 비정규직 대책 요구

조리원·특수교육실무사 등

조리원과 특수교육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예기치 않은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광주 학비연대)는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일이 23일로 늦춰지면서 이 기간동안은 휴업으로 정규직은 자율연수와 재택근무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방학의 연장’이라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학비연대는 “조리원·조리사 등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보다 무

급기간이 더 두렵다. 3개월째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의 계약일은 290일이고, 이미 연봉이 책정되어 있다. 휴업 동안의 임금은 수입을 연장할 방향 때 지급하게 된다. 3월에는 맞춤형 복지비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우선 지급하거나 방학 중 비근무자 준비일 사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선욱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는 휴업이 아니라서, 휴업수당을 줄 근거가 없다. 개학 연기가 더 길어지면 수업일수 조정 등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400여 명 중 방학 기간 비근무자는 조리원 1220명, 조리사 236명, 과학실무사 219명, 특수교육실무사 207명 등 모두 1912명에 이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대형학원 9곳 휴원 동참...영향 주목

광주 지역 대형 학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른 학원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9일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 대성학원 2곳, 이투스 2곳, 광주 일등학원 1곳, 광주 스키아에듀학원 1곳, 카이스트 3곳 등 대형 학원 9곳이 오는 15일까지 휴원을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개학 연기 기간에도 학원들이 문을 여는 바람에 방역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원들은 휴원을 주저하고 있다. 일부 학원은 며칠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 빠른 수업을 보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일상회복을 소망하며’라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을 위해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중증장애인 공채 면접시험 4월 25일로 연기

광주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중증장애인 공채 채용 면접시험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1일 예정이었던 면접시험은 4월

25일로 5주 연기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과 국민 건강, 안전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응시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는 9명 선발에 181명이 접수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마스크도 안쓰냐”며 말다툼 끝 대리운전기사 폭행한 40대

“...마스크를 쓰지 않음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9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A(47)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 B(43)씨에게 “코로나가 오늘도

나왔는데 마스크도 안쓰냐”며 핀잔을 주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 B씨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 같다. A씨와 B씨를 불러 정황화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대출
- 3~9세 아동 5세 이상 저소득층 10만 가구에 100만 원 지원
-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저금리 대출
-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p>문흥지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	--	---